

문화 자본으로 몸값 올리기: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자본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1. 시작하는 말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19세기의 여성 소설가로서 우리에게도 낯익은 많은 소설을 쓴 작가이다. 그녀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씌여진 것들로 이런 소설들의 인기가 아직도 시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글쓰기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1813년에 출간된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인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그녀의 다른 많은 소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Grey 335) 소설이다. 그녀의 소설에 대한 이같은 대중적 인기는 문학의 차원을 넘어서 영상 매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된다. 최근 그녀의 소설 대부분이 영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소설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오만과 편견』 또한 영화화되어 소설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소설은 씌여질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나폴레옹 전쟁등에 대한 묘사가 없이 단지 구혼과 결혼이라는 아주 제한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미스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이같이 높은 인기도를 반영하여 이 소설에 대한 비평 또한 활발하며, 비평의 폭과 깊이 또한 넓고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비평에 있어 최근의 이론을 원용한 예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이 소설 읽기에 최근의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원용하여 읽음으로써 이제까지 피상적인 읽기에만 머문 이 소설의 읽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부르디외의 주요 개념들

이 소설을 부르디외의 이론을 원용하여 읽기에 앞서 우리는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자본, 가치등 마르크스의 여러 주요 개념들을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 사회 현상을 분석한 사회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제도권 교육이다. 그는 특히 프랑스의 제도권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부 특수층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그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 그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가 도출한 결론은 프랑스의 제도권 교육의 여건을 명징하게 설명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연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의 제도권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제도권 교육에 대한 그의 연구는 『오만과 편견』을 읽는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개념의 틀을 제공한다.

그가 개발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비투스(habitus)라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은 물론 부르디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뒤르켐(Durkheim)등의 학문 전통 속에서 생겨난 개념이다(Brooker 98). 부르디외는 하비투스를 “하나의 지속적이고 전이 가능(轉移 可能)한 정의 체계”(a durable, transposable system of definitions, *Invitation* 134)라고 정의한다. 이같은 정의 체계는 우선 가정에서 어린이에 의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 이렇게 가정에서 습득된 정의 체계는 “일차적인 하비투스”(primary habitus)가 된다. 이렇게 해서 습득된 일차적인 하비투스는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회제도를 거치는 동안 이차, 삼차 등등의 하비투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제도권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Brooker 98). 이같이 해서 형성된 하비투스의 층은 처음에는 가정에서 형성되지만, 이러한 하비투스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의 기초가 된다”(the basis of all subsequent experiences, *Invitation* 134).

부르디외의 이같은 하비투스의 정의는 알튀세(Louis Althusser)가 말하는 가정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Family ISA, Family Ideological State Apparatus)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이 이념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는 어린이가 제도권 교육 기관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차, 삼차의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동안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 발전된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는 어릴 적에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여타의 하비투스로 중무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진다. 따라서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 하비투스가 될뿐만 아니라 그가 후에 형성하게 될 여타의 하비투스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비투스란 어린이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 태어나 그가 몸담고 살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인 이데올로기를 전승받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는 가정, 계급, 사회적인 지위, 교육, 이데올로기, 취향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하비투스는 단지 공시적(共時的)인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통시적(通時的)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부르디외는 하비투스의 이같은 통시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하비투스는] 지속적이고 전이(轉移)가 가능한 기질의 체계이며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된 구조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비투스는 실천과 재현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칙으로서 이같은 실천과 재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의식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실천과 재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명백히 관장할 것을 가정하지 않고 실천과 재현의 결과에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과 재현은 결코 규칙을 따라 생성된 것이 아니면서도 객관적으로 “규제되며” “규격적”인 것으로, 이들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지도자가 조직한 행동의 결과물이 아닌데도 집단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하비투스는 종종 “게임에 대한 느낌”이나 “실제적인 감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같은 느낌이나 감각은 행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되거나 규칙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게 한다. 하비투스(habitus)는 오히려 실천과 인식을 생성하는 기질적인 감각이다. 하비투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오랜 습득 과정의 결과물로서 “제2의 감각”이나 제2의 천성이 된 것이다. 부르디외의 정의에 따르면 하비투스라고 하는 기질은 행위자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이다.

[Habitus is] the system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d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that is, as principles which generate and organize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that can be objectively adapted to their outcomes without presupposing a conscious aiming at ends or an express mastery of the operations necessary in order to attain them. Objectively "regulated" and "regular" without being in any way the product of obedience to rules, they can be collectively orchestrated without being the product of the organizing action of a conductor.

The habitus is sometimes described as a "feel for the game", a "practical sense" (*sense pratique*) that inclines agents to act and react in specific situations in a manner that is not always calculated and that is not simply a question of conscious adherence to rules. Rather, it is a sense of dispositions which generate practices and perceptions. The habitus is the result of a long process of inculcation, beginning in early childhood, which becomes a "second sense" or a second nature. According to Bourdieu's definition, the dispositions represented by the habitus are "durable" in that they last throughout an agent's lifetime. (*Field 5*)

위에 인용한 존슨(Johnson)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디외가 말하는 하비투스는 사회 구성원의 외형적인 행동 규범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육화되고 내면화되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화되는 살아 있는 활동의 법칙인 셈이다.

하비투스는---구현된 역사이며, 제2의 천성으로서 내면화돼 있기 때문에 역사로서는 망각됐지만---지난 모든 과거의 산물로서 이러한 과거를 생생하게 현전화(現前化)한 것이다.

The habitus---embodied history, internalized as second nature and so forgotten as history---is the active presence of the whole past of which it is the product. (*Logic of Practice 56*)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하여 내면화한 하비투스¹⁾는 그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경우 그는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순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응용함으로써 하비투스는 이제 생명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의 행동원리가 된다. 이같은 하비투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하비투스>는 노움 촘스키의 “생성 문법”과 유추할 경우 하나의 내면화된 도식의 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의 체계는] 하나의 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지각, 그리고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며, 또한 이런 도식의 체계가 허락하는 것만이 [거기에서는] 가능할뿐이다.

This *habitus* could be defined, by analogy with Noam Chomsky’s “generative grammar,” as a system of interiorized schemata that allow all the thoughts, perceptions and actions of a culture, and these only. (“Postface” 152)

그러면 하비투스에 의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디외는 이를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가 정의하는 자본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의미의 자본이 아니다. 부르디외는 모든 종류의 권력(power)에 자본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본의 개념을 확대한다. 따라서 부르디외가 말하는 자본에는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등 여러 종류의 자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본은 “<권력>의 사회적인 관계”(social relation of power, Swartz 73)로 자리잡게 된다. 부르디외가 이같이 하비투스의 개념을 통하여 자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자본을 확대 해석한 것은 경제 행위에서 물질적/금전적 자본이 지니는 편협성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이라는 개념이 사회 자본, 교육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등으로 분화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의 개념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 자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문화 자본은] 지식, 성취, 정규 교육이나 비정규 교육에 의해 획득된 자격의 취득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개인은 어느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전문직종 또는 조직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여 이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 자본은 우리가 광의적(廣義的)으로 “교양 있는” 개인이나 사회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문화 자본은 사회에 존재하는 비교 우위와 열세를 가름하고 이를 공고히 한다. [문화 자본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할 수는 없으며, (중략) (수입, 재산, 권력등으로 측정되는) <경제 자본>이나 <사회 자본>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Cultural capital is]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ccomplishments, formal and informal qualifications by which an individual may gain entry and secure a position in particular social circles,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It may therefore be seen as a more systematic way of accounting for what is entailed in loose descriptions of the 'cultured' individual or social type. Cultural capital marks and reinforces kinds of re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 society, although . . . it may be held and not 'invested' at any given time and can overlap with or diverge from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or 'social' capital (measured by income, wealth and power). (Brooker 46)

따라서 문화 자본은 물질적 토대에 기초한 경제 자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이런 형태의 자본을 가지고 경제 주체가 자신의 교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의 경제 활동에서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의 목적이 단지 자본의 사용 가치의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있는 것이라면, 경제 자본이 아닌 이같은 문화 자본으로 교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 된다. 더구나 경제 주체가 가진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경제 자본의 증식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 자본에 의존하여 교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경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효과적인 자본 증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 자본의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오만과 편견』에서 문화 자본이 어떻게 교환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3.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경혼 시장의 풍속도

재산깨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1)

이것은 이 소설의 유명한 첫 구절이다. 이같은 묘사는 저자인 제인 오스틴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딸을 다섯이나 둔 베네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하다. 이에서 보듯이 이 소설에서는 한 미혼녀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로 여러 다른 과정을 통해 결혼한 상이한 부부들의 성혼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소설은 영국의 섭정기(the Regency Period, 1811-1820)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오스틴이 살았던 시기여서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섭정기는 후에 조지 4세가 된 황태자 조지(George)가 조지 3세(George III)의 섭정을 맡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 계급의 구분이 엄격하고 계급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하던 때이다. 따라서 결혼은 자본을 재생산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 소설에 묘사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은 따라서 결혼이 낭만적인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자본의 형성, 축적, 및 보존 과정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에 행해지던 경제 행위로서의 결혼 행태를 아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소설이 이 시기의 결혼 시장의 양태를 보여 주는 교과서라고 불러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사회 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는 사회 제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이러한 사회의 작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행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은 곧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는 공간으로 이 곳에서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수요자의 상품 구매의 필요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나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는 결정된 가격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이 곧 상품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인육시장(人肉市場)이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같은 인육시장으로서의 결혼 시장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상품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품 시장과는 다르다. 또한 결혼 시장에서는 보통의 시장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제적인 지위가 결혼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가치는 결혼의 성사 여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섭정기에는 통념적으로 여성은 결혼에 있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있던 시기에 여성이 안정된 생활의 유지를 위해 결혼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이었다. 이같은 결혼관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결혼 습관에서 형성된 사고 형태로 이는 여성이 결혼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된 경제 활동임을 보여 준다.

결혼에서 이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으나, 결혼이 감정과 인격을 가진 두 남녀의 결합인 점에 있어서는 결혼은 경제적인 요건만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 결혼에 있어 경제적인 여건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애정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애정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경제적인 고려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결혼을 편의 결혼 또는 정략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지극히 한정됐던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같은 결혼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딸)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한 적령기 여성이 경제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같은 편의 결혼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결혼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 행위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이 자본의 유지 및 확대 재생산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했지만, 결혼은 또한 신분의 유지나 상승 또는 하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듯이 경제적인 몰락은 또한 신분의 하락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계급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이 소설에 나오는 윌리엄 루카스 경(Sir William Lucas)이다. 그는 본래 상인 출신이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시골에다 땅을 사고 신사(gentleman)로 정착하여 은퇴한 경우이다. 그리고 또한 빙리(Mr. Bingley)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상업으로 크게 돈을 번 경우이다. 이에서 보듯이 아무리 상류층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신분이 하강하는 반면에, 사회적인 신분이 낮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19세기 초 영국의 사회 계급은 이처럼 자본적인 부(富)에 의해 사회적인 계급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섭정기의 영국 여성들에게는 경제 활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가능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직업은 가정 교사(governess)와 여학교 교사(teacher)였다(Teachman 4). 가정 교사는 상류층의 하녀보다 조금 나은 직업으로, 입주(入住)하여 여자 아이들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상류층 사회에 속한 사람에게 걸맞는 옷을 사 입는데 써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교사의 보수로는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더구나 가정 교사 경력은 결혼에 있어 좋은 남편감을 찾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이유는 결혼 적령기 여성이 가정 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여학교 교사라는 신분 또한 가정 교사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사회적인 여건이 이러했기 때문에 적령기의 여성은 오히려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결혼 상대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상

책이었다.

사회적인 환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인 적령기의 여성이기보다는 그녀의 부모, 특히 어머니였다. 더구나 자신의 딸의 신분 상승과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걸린 결혼이고 보니, 결혼 적령기 처녀의 어머니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같은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시집 보내야 할 딸을 다섯이나 둔 메네트 부인이 겪는 정신적 고충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딸들을 시집보내는 것은 평생의 사업"(The business of her life was to get her daughters married, 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인 빙리가 그녀의 이웃에 있는 네더필드에 이사해 온 것은 그녀로서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는 수입이 좋기 때문에 남편감으로서는 아주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메네트 부인이 남편에게 들려 주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틀림없이 혼잘 거예요. 독신 재산가예다 일년에 4, 5천 파운드라니, 딸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난 말예요.”

"Oh! single, my dear, to be sure! A single man of large fortune; four or five thousand a year. What a fine thing for our girls!"(1)

섭정기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을뿐 아니라, 여성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류 사회의 여성의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딸이 한둘이 아닌 다섯이나 있는 메네트 부인이 딸들의 남편감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빙리에게 이처럼 열을 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녀의 이같은 열성은 남편인 메네트 씨가 보이는 딸들의 결혼에 대한 무관심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메어리 에반스(Mary Evans)는 메네트 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세기 지주들의 미혼한 딸들이 겪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메네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전적으로 우스운 것만은 아니다. 그녀가 딸들의 결혼에

대해 강박적인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딸들을 출가시키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계속적으로---그리고 아주 극성스럽게---몰색하는 것은 분명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베네트 씨가 [그의 딸들의 결혼에 대해] 보여주는 냉소적인 관심의 결여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그에게는 부인이 하는 일이 단지 귀찮을뿐이었다.

[I]n view of the economic exigencies facing the unmarried daughters of the eighteenth-century gentry, Mrs. Bennet's concerns do not seem entirely ridiculous. Indeed, her obsessive concern with marriage and her ceaseless---and quite ruthless---pursuit of young men to marry her daughters are arguably instances of greater parental responsibility than the sardonic lack of interest of Mr. Bennet, to whom the activities of his wife are nothing but an irritation. (7)

영국 섭정기의 결혼 관행이 애정에 기초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사실은 미혼한 딸을 다섯이나 둔 베네트 부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 둔 미혼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생각은 콜린스(Collins)의 경우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그는 베네트 씨의 사촌으로 베네트 씨로부터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베네트 씨가 죽을 경우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베네트의 부동산인 롱부언(Longbourn)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같은 처지에 있는 콜린스의 후견인이며, 헨스포드(Hunsford)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자리를 구해 준 레이디 캐서린(Lady Catherine de Bourgh)은 그가 신중히 신부감을 골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할 것을 조언한다(46). 이같은 레이디 캐서린의 조언을 들은 콜린스는 베네트 씨의 다섯 딸 중의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네트 씨의 재산을 그가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하는 데 대한 보상---일종의 속죄---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 계획이 적절함과 타당성으로 가득 찬 훌륭한 것, 즉 자기 쪽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관대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This was his plan of amends---of atonement---for inheriting their father's estate; and he thought it an excellent one, full of eligibility and suitableness, and excessively generous and disinterested on his own part. (48-49)

위의 인용에 보아 알 수 있듯이, 콜린스에게는 결혼은 단지 하나의 상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로 거기에는 애정이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그는 베네트 씨네 딸 중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 쪽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관대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된 콜린스는 그녀에게 청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혼 이유를 말한다.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나처럼) 안정된 환경에 있는 목사는 누구나 그 교구에서 결혼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결혼이 제 행복을 더욱 복돋워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후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고귀한 부인의 특별한 충고와 권면 때문입니다. (중략). 내가 헨스퍼드를 떠나기 바로 전 토요일 밤 (중략)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씨,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같은 목사는 결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부를 골라요.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여자를 고르라니까요. <당신을> 위해서는 일도 잘하고 쓸모 있는 여자라야 해요. 사치스럽게 자라지 않고 적은 수입을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나의 충고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런 여자를 발견해서 헨스퍼드로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찾아가 보죠.” (중략). 하지만 사실은 이래요.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이 토지를 상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략) 따님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님들의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지도록 말씀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슬픈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말입니다.

My reasons for marrying are: first, that I think it a right thing for every clergyman in easy circumstances (like myself) to set the example of matrimony in his parish. Secondly, that I am convinced it will add very greatly to my happiness; and thirdly---which perhaps I ought to have mentioned earlier, that it is the particular advice and recommendation of the very noble lady whom I have the honour of calling patroness. . . . [I]t was but the very Saturday night before I left Hunsford . . . that she

said, 'Mr. Collins, you must marry. A clergyman like you must marry.--Chuse properly, chuse a gentlewoman for *my* sake; and for your *own*, let her be an active, useful sort of person, not brought up high, but able to make a small income go a good way. This is my advice. Find such a woman as soon as you can, bring her to Hunsford, and I will visit her.' . . . [T]he fact is, that being, as I am to inherit this estate after the death of your honoured father . . . I could not satisfy myself without resolving to chuse a wife from among his daughters, that the loss to them might be as little as possible, when the melancholy event takes place. (74)

콜린스의 이같은 청혼 사유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처지를 아주 많이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그의 청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와 엘리자베스에게 모두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이같은 그의 청혼을 엘리자베스가 거절하리라고는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같은 콜린스의 사무적이고 상업적이며 금전주의적인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그녀는 콜린스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콜린스에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 소설이 씌여진 당시에는 결혼에 대해 엘리자베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콜린스나 베네트 부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이 성립되지 않자 그녀의 친구인 샬롯 루카스(Charlotte Lucas)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샬롯의 결혼관을 살펴봄으로써 엘리자베스와 샬롯의 결혼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샬롯은 27세의 미혼 여성이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친한 친구”(intimate friend, 11)로,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처녀”(a sensible, intelligent young woman, 11)이다. 그녀가 이처럼 보통 이상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이란 애정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상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당시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에서의 행복이란 전혀 팔자 소관이거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서로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해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켜 주진 못 해. 나중에 가서는 차츰 어긋나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 엘리자베스도 일생을 함께 지내려는 사람의 결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아는 게 좋아.

Happiness in marriage is entirely a matter of chance. If the dispositions of the parties are ever so well known to each other, or ever so similar before-hand, it does not advance their felicity in the least. They always contrive to grow sufficiently unlike afterwards to have their share of vexation; and it is better to know as little as possible of the defects of the person with whom you are to pass your life. (15)

샬롯의 이같은 말을 듣고 그녀를 잘 아는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웃기지 마, 샬롯. 그건 옳지 못해. 옳지 못하다는 건 샬롯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샬롯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같은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거야.

You make me laugh, Charlotte; but it is not sound. You know it is not sound, and that you would never act in this way yourself. (15)

그러나 샬롯이 자신의 말과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의 추측은 전혀 빗나가고 만다. 엘리자베스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샬롯은 에밀리와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콜린스에게 은근히 접근하여 그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하고 난 후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는 거기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곳을 엘리자베스는 거실로 썼으면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거실은 구석에 있었는데, 이는 큼직하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과 식당이 왜 이처럼 뒤바뀌었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샬롯이 평소에 식당 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 방은 다른 방보다 더 크고 바깥 경치도 훨씬 좋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콜린스 씨가 이렇게 훌륭한 방에 있게 되면 자기들만이 쓰는 방에는 있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이런 처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Elizabeth at first had rather wondered that Charlotte should not prefer the dining parlour for common use; it was a better sized room, and had a pleasanter aspect; but she soon saw that her friend had an excellent reason for what she did, for Mr. Collins would undoubtedly have been much less in his own apartment, had they sat in one equally lively; and she gave Charlotte credit for the arrangement. (116)

이같은 엘리자베스의 추측에서 드러나듯이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한 것은 단지 그녀가 노처녀로 늙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녀는 이처럼 편의상의 결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점을 얻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녀는 단지 콜린스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은 셈이다. 그녀에게는 결혼이란 애정에서 우러난 헌신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단지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녀의 나이가 27세라는 사실은 그녀가 일생을 노처녀로 늙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여 가정을 갖느냐 하는 분수령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중대한 기로에 다다른 샬롯은 이제 애정과 낭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음을 안다 (Teachman 10). 따라서 그녀가 콜린스와 결혼한 것은 그녀의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리적인 생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밀리지 않게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안주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택한 것이다.

샬롯과 베네트 부인 그리고 콜린스가 결혼을 애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단지 하나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로 본다면, 이와는 다른 유형의 결혼관이 이 소설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리디아가 위컴에게 보이는 연애 감정(infatuation)이다. 리디아는 제복을 입은 군인을 아주 선호하는데, 그녀의 이같은 제복 선호를 만족시켜 주는 인물이 바로 인근의 민병대(militia) 연대에

소속된 위컴이다. 위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디아는 그에게 폭 빠져 있다. 위컴이 소속된 민병대 연대가 브라이튼(Brighton)으로 이동하자, 위컴은 그녀에게 같이 갈 것을 권한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아 미혼인 리디아가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묵인 속에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간다. 브라이튼으로 간 리디아는 부모의 간섭이 없게 되자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하여 위컴과 리디아는 사랑의 도피행을 떠난다. 미혼의 리디아가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간 것만으로도 집안의 큰 불명예인데, 그녀가 위컴과 함께 잠적해 버렸으니, 베네트 씨 가족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이같은 리디아의 분별없는 행동이 그녀의 미혼 자매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결혼에도 불명예를 가져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리디아의 외삼촌인 가디너 씨(Mr. Gardiner)는 이 둘을 찾아내어, 다아시(Darcy)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 둘을 결혼시킨다. 또한 가디너 씨는 위컴을 현역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주선해 준다.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은 따라서 무모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디아는 이성을 잃고 맹목적인 애정에 빠진 것이고, 위컴은 애정보다는 금전과 자신의 출세 때문에 리디아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4. 확대 재생산으로서의 결혼: 엘리자베스의 문화 자본과 다아시의 경제 자본의 결합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이 소설의 주요 테마이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비하여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열세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애정에 의한 두 남녀의 결합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서 더 나아가 결혼이 확대 재생산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경제 행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의 결혼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엘리자베스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다아시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다아시 또한 이

같은 경제 체제에 속하기 때문에 결혼을 단지 애정에 의한 결합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일종의 이윤 확대를 위한 재투자자의 기회로 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통해 밀지는 장사(?)를 할 위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게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결합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이같은 자신의 경제적인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나 자신의 경제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경우 문화 자본이 경제 자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외형적인 자본인 경제 자본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빈약한 자신의 경제 자본을 문화 자본에 의해 보완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인 열세를 만회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문화 자본을 형성한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그녀의 문화 자본은 그녀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딸이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의 상속법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 반면에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하비투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로부터 하비투스와 문화 자본을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는 “그[아버지]의 상속인”(his heiress, Fraiman 377)이 된 셈이다. 이같은 그녀의 상속은 그녀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엘리자베스는 “그[아버지]의 세상으로부터 냉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습관, 사회의 비판자로서의 역할”(his ironic distance from the world, the habit of studying and appraising around him, the role of social critic, Fraiman 379)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이같은 가치관과 태도는 모두 긍정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녀의 부모들의 결혼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베네트 씨는 아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같은 베네트 씨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그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그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엘리자베스의 의견이 가족 모두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녀는 부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안락에 관해 즐거운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젊음과 미에 현혹되어 또 이러한 젊음과 미가 흔히 지니는 외양적인 좋은 기분에 이끌려 어머니와 결혼했으나, 어머니의 이해가 부족하고 소견이 좁은 탓으로 결혼 초기에 이미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식어 버렸었다. 존경과 신뢰감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는 깨져 버렸다. (중략). 부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의 즐거움에 기여한 바가 없는만큼 그가 부인의 해택을 입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H]ad Elizabeth's opinion been all drawn from her own family, she could not have formed a very pleasing picture of conjugal felicity or domestic comfort. Her father, captivated by youth and beauty, and that appearance of good humour, which youth and beauty generally give, had married a woman whose weak understanding and illiberal mind, had very early in their marriage put an end to all real affection for her. Respect, esteem, and confidence, had vanished for ever; and all his views of domestic happiness were overthrown. . . . To his wife he was very little otherwise indebted, than as her ignorance and folly had contributed to his amusement. (162)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고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習性)는 비록 그녀가 처음에는 다아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는데는 방해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같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비판 의식에 힘입은 것이다. 다아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녀가 가진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에 있으며, 이같은 그녀의 판단 능력은 그녀의 가정 교육인 하비투스(習性)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다아시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이 아주 나빴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둔다면 그녀의 이같은 태도는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보게 되는 계기는 댄스파티에서이다. 이 댄스파티에는 빙리와 다시가 모두 나타났는데, 빙리는 부드럽고 친절한 반면에 다시는 거만하고 뻣뻣한 인물로 묘사돼 있다. 다아시는 자신이 아는 여자가 아니면 같이 춤을 추자고 제의조차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게는 초면이기 때문에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추자는 제의를 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다시의 행동은 엘리자베스에게는 커다란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다아시의 성격은 그의 이러한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거만한데다가 그들과 함께 즐기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더비셔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의 기분 나쁜 용모가 그의 친구인 빙리 씨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평판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 (중략). 그의 성격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거만하고 가장 기분 나쁜 인물이었으므로 모두들 그가 거기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H]e was discovered to be proud, to be above his company, and above being pleased; and not all his large estate in Derbyshire could then save him from having a most forbidding, disagreeable countenance, and being unworthy to be compared with his friend [Bingley]. . . . His character was decided. He was the proudest, most disagreeable man in the world, and every body hoped that he would never come there again. (6)

위에 나온 묘사에서 다아시가 극단적으로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이라는 사실은 최상급으로 표현된 그의 성격의 결함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다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그의 행동거지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혐오와 선호의 감정은 사실상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이처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그녀의 다아시에 대한 기대감이 배반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그에 대한 혐오감이 시기심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의 시선을 의식한 엘리자베스는 그가 단지 대수롭지 않은 혐오의 인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남자”(great a man)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기가 그런 훌륭한 남자의 찬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자기에게는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다아시가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에 대한 생각에 비취 볼 때 잘못 되고 눈에 거스리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의를 끈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자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가 다아시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She hardly knew how to suppose that she could be an object of admiration to so great a man; and yet that he should look at her because he disliked her, was still more strange. She could only imagine however at last, that she drew his notice because there was a something about her more wrong and reprehensible, according to his ideas of right, than in any other person present. This supposition did not pain her. She liked him too little to care for his approbation. (35)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한 선입관을 수정하게 된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선입관을 수정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녀의 이같은 열린 마음은 가정의 하비투스에 의해 형성된 문화 자본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아시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차츰 수정해 감으로써 그녀에 대한 불호(不好)의 감정이 차츰 차츰 호감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수정의 계기는 위컴에 대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견해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위컴이 상냥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품위있고 성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녀는 위컴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다아시가 거만하고 신뢰성이 없는 인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로부터 위컴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다아시가 하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아시에 대한 생각을 새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낀다.

엘리자베스는 좀 더 정신차려 [편지를] 읽었다. 그러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컴이라는 인물의 훌륭함에 대해 그녀가 품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위컴 씨 자신이 말한 그

의 신상에 대한 놀라운 호감을 뒤엎어 버려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몹시도 아팠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는 공포의 전율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것은 거짓말에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야!”라고 거듭 외치면서 이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에는 마지막 한두 페이지에 무슨 말이 써여 있는지 미처 그 뜻도 파악하지 못한 채 급히 편지를 접어 놓으며, 이 편지에 마음을 쓰지 말자고, 다시는 이 편지를 보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W]hen she read [the letter] with a somewhat clearer attention, a relation of events, which, if true, must overthrow every cherished opinion of [Wickham's] worth, and which bore so alarming an affinity to his own history of himself, her apprehension, and even horror, oppressed her. She wished to discredit it entirely, repeatedly exclaiming, "This must be false! This cannot be! This must be the grossest falsehood!"---and when she had gone through the whole letter, though scarcely knowing any thing of the last page or two, put it hastily away, protesting that she would not regard it, that she would never look in it again. (141)

그녀는 다아시의 편지를 이제 멀찌감치 놓고는 그녀와 위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한 행동과 말에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 본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를 이모부 댁에서 처음 만나던 날 저녁에 그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말씨까지도 생생히 기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제서야> 초면의 사람에게 그러한 대화는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그가 했던 야비한 행동과 언행의 불일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위컴 씨가 다아시를 만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것, 오히려 <자기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다아시 씨가 네더필드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던 것,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네더필드에서 열렸던 무도회는 피했던 사실을 상기했고, 또 네더필드 일가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위컴 씨가 자기 이야기를 그녀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다가 그들이 떠난 뒤에야 그의 이야기가 모든 곳에서 논의되었다는 것과, 그가 다아시 씨의 부친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이 다아시 씨의 비행을 세간에 폭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으면서도, 다아시 씨의 인격을 깎아 내리는 데에는 사양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위컴 씨에 대한 모든 일이 이제 와서는 왜 이처럼 사뭇 달라 보이는지!

She perfectly remembered every thing that had passed in conversation between Wickham and herself, in their first evening at Mr. Philip's. Many of his expressions were still fresh in her memory. She was *now* struck with the impropriety of such communications to a stranger, and wondered it had escaped her before. She saw the immediacy of putting himself forward as he had done, and the inconsistency of his professions with his conduct. She remembered that he had boasted of having no fear of seeing Mr. Darcy---that Mr. Darcy might leave the country, but that *he* should stand his ground; yet he had avoided the Netherfield ball the very next week. She remembered also, that till the Netherfield family had quitted the country, he had told his story to no one but herself; but that after their removal, it had been every where discussed; that he had then no reserves, no scruples in sinking Mr. Darcy's character, though he had assured her that respect for the father, would always prevent his exposing the son.

How differently did every thing now appear in which he was concerned! (142-143)

이처럼 꼼꼼히 따져 보고 난 후 그녀는 위컴이 처음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마음 자세는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바꿀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다아시 씨든 위컴 씨든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녀는 자기가 우매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을 가졌었고 어리석었음을 통감했다.

“내가 정말로 치사하게 행동했네”하고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안목이 있다고 뽐내던 내가 아니었나! 재능이 있다고 허영심에 들떠 있던 내가 아니었나! (중략). 한 사람의 편애에 기뻐하고 다른 한 사람의 무시에는 화를 내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 사귄 때부터 나는 편견과 무지를 사모했고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구나.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She grew absolutely ashamed of herself.---Of neither Darcy nor Wickham could she think without feeling that she had been blind, partial, prejudiced, absurd.

"How despicably have I acted!" she cried.---"I, who have prided myself on my

discernment!--I, who have valued myself on my abilities! . . .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r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 (143-144)

한편 다아시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 소설의 종결 부분에 이르러 다아시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건방지게 행동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꽤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배웠어요. 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충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배운 가정 교육의 원칙들을 [겸손하게가 아니라] 거만하고 자만심이 가득찬 마음으로 실행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외아들로 태어나서 (몇 해 동안 동생이 없이 <외아들>이었죠) 나는 부모들에 의해 버릇없이 키워졌어요. 부모님들은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셨지만 (특히 아버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친절하셨죠) 저의 이기적이고 거만한 행동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복돋아 주고 장려해 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집안 식구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쁘게 <생각하려> 했는데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식견과 가치가 제 자신에 비하면 못하다는 뜻이지요. 여덟 살 때부터 스물 여덟이 된 오늘까지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I have been a selfish being all my life, in practice, though not in principle. As a child I was taught what was *right*, but I was not taught to correct my temper. I was given good principles, but left to follow them in pride and conceit. Unfortunately an only son, (for many years an only *child*) I was spoilt by my parents, who though good themselves, (my father particularly, all that benevolent and amiable,) allowed, encouraged, almost taught me to be selfish and overbearing, to care for none beyond my own family circle, to think meanly of all the rest of the world, to *wish* at least to *think* meanly of their sense and worth compared with my own. Such I was, from eight to eight and twenty. (254)

이같은 다아시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자신을 질책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잘못된 부모와 가정 교육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 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책임

회피는 그가 책임감있고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보다 더 성숙한 인물임을 실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 모두 자신들이 자란 가정 환경에서 오는 하비투스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자기 검증을 거친 후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서로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해소하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이들의 결혼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결말은 아니다. 물론 이들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레이디 캐서린의 결정적인 실수(?)가 계기가 된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이같은 실수가 이들을 결혼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레이디 캐서린의 이같은 실수는 단지 이 소설에 나오는 문학적인 장치일 뿐, 그때 쯤에는, 이 둘을 가로막고 있던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혼은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가장 많은 경제적 자산을 보유한 다아시가 가장 많은 문화 자본을 가진 엘리자베스와 자본 통합을 하는 경제적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경제 활동이며, 이러한 경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생산의 극대화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바로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이루어진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의 경제 자본이 아닌 문화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이를 경제 자본의 차원으로까지 높였다는 의미에서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연애 소설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어떻게 자본 형성의 원칙을 따르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더구나 이제껏 이 소설 읽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던 문화 자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측면에서 부르디외의 새로운 이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용한 문헌

-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Criticism*. Ed. Donald Gray. New York: Norton, 1966.
- Brooker, Peter. *A Concise Glossary of Cultur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Arnold, 1999.
- Bourdieu, Pierre.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Ed. and Intro. by Randal Johnson. New York: Columbia UP, 1993.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Bourdieu, Pierre. "Postface." In Erwin Panovsky, pp. 135-167.
- Bourdieu, Pierre, and L. Wacquant.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92.
- Evans, Mary. *Jane Austen and the State*. London: Tavistock, 1987.
- Fraiman, Susan. "The Humiliation of Elizabeth Bennet." In Gray, pp. 376-384.
- Grey, J. David, A. Walton Litz, and Brian Southam, eds. *The Jane Austen Companion*. New York: Macmillan, 1986.
- Panovsky, Erwin. *Architecture gothique et pensée scolastique*. Paris: Minuit, 1967.
- Swartz, David. *Culture and Power: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U of Chicago P, 1997.
- Teachman, Debra, ed. *Understanding Pride and Prejudice: A Student Casebook to Issues, Sources, and Historical Documents*. Westport, CT: Greenwood, 1997.

ABSTRACT

Raising the Value of Dowry by Cultural Capital: The Capital in *Pride and Prejudice*

Chong-Ho Lee

Jane Austen is a great story teller, and the theme of her novels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cerned with the complicated courtship between young women of lower class and men from the affluent class. Readers of her novels, therefore, do not generally expect much except the unravelling of the courtship process. This kind of simplified understanding of her novels, however, is no more than a very superficial interpretation of her novels. The fact that her novels do not very much go beyond the family situations is considerably contributing to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 theme of her novels. There is more to her novels than this.

Even though Austen mainly describes domestic circumstances in her novels, we should not be fooled into thinking that she is mainly concerned with courtship process in her novels. What I am trying to demonstrate in this essay is that under the seemingly simple and unproblematic descriptions in her novels we could find the complicated and dynamic workings of the capital. We can see this very clearly in her *Pride and Prejudi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capital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Pierre Bourdieu means by habitus and cultural capital. Bourdieu defines habitus as "the system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d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What he means is that habitus is the generating principle of behavior embodied in the unconscious. The habitus,

therefore, is the invisible basis of the cultural capital, which Bourdieu maintains is as important as economic capital. Cultural capital can be defined as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ccomplishments, formal and informal qualifications by which an individual may gain entry and secure a position in particular social circles." By inheriting the habitus from her father and accumulating cultural capital all by herself, Elizabeth gains acceptance by and eventually marries Darcy. This marriage, however, is not simply a marriage of hearts only. What is important is that Elizabeth has raised the value of her own meager dowry by cultural capital. Her marriage, in this sense, is also the marriage of capitals: the monetary capital of Darcy and the cultural capital of Elizabeth. The marriage as merger of these two different kinds of capitals makes it economically sound and secure for both parties involved and there is plenty of indication that it will be viable on a sound basis in the future.